



생생리포트



한성백제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서울시 관광 활성화

- I. 역사관광 분야의 가장 뜨거운 이슈 (hot-issue), 한성백제!
- II. 풍납토성 조기보상, 기획발굴과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
- III. 한성백제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및 지역협력을 통한 백제역사관광벨트 조성
- IV. 민관거버넌스 구축·활용을 통한 최고의 역사관광특구 조성
- V. 세계 최고의 역사관광도시, 서울을 꿈꾸며!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

강희은 heeeun.kang@seoul.go.kr

한성백제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서울시 관광 활성화

I. 역사관광 분야의 가장 뜨거운 이슈 (hot-issue), 한성백제!

“2000년 시간여행, 한성백제문화제 8~11일까지 개최”

(2015.10.5., 헤럴드경제)

“한성백제문화제 ‘2016년 문화관광축제’ 선정”(2016.1.4., 아시아경제)

“백제문화, 한·중·일 교류에 중요한 역할”(2016.1.22., 뉴시스)

앞서 소개된 신문기사 제목은 서울에 위치한 (한성)백제유적이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 중의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민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서울을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조선의 수도 한양이기 한참 이전인 기원전 18년부터 백제의 수도인 한성이었다. 백제의 수도라고 하면 흔히 웅진(공주)과 사비(부여)를 먼저 떠올리지만 웅진과 사비가 백제의 수도였던 기간은 전체 백제 역사 678년 중 185년(27%)에 불과한 반면, 한성^①은 493년(73%)간 백제의 수도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풍납토성, 석촌동 고분군 등 한성백제유적지 일대를 서울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1) 풍납토성 조기보상, 기획발굴과 복원·정비, (2) 한성백제유적의 조속한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충남(공주·부여), 전북(익산) 등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벨트화, (3) 최고의 역사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민관거버넌스 구축·활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

① 한성백제의 주요 유적으로는 풍납·몽촌토성(왕성), 석촌동·방이동 고분군(왕실 무덤), 아차산성 및 삼성동 토성(방어성), 여(묘)자형 제사시설(종교시설) 등이 있다.

〈표 1〉 공주·부여·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지역	왕성	방어성	왕실무덤	종교시설
공주	공산성	-	송산리고분군	-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나성	능산리고분군	정림사지
익산	왕궁리유적	-	-	미륵사지

II. 풍납토성 조기보상, 기획발굴과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

1. 풍납토성 조기보상 및 기획발굴을 통한 백제왕도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풍납토성이 1963년에 사적 11호(국가문화재)로 지정된 후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1993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였고, 2015년 말까지 약 5,700억 원의 보상금으로 전체 토지의 약 38.2%를 매입하였다.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풍납토성 보상예산이 연간 500억 원에 불과하여 총 2조 원 이상 소요되는 풍납토성 전체를 보상하는 데 수십 년 이상이 걸려 현재의 보상(무기한 보상) 방식으로는 풍납토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유적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발굴로 왕궁터, 성벽 등 핵심유적 추정지 발굴이 미흡하여 백제왕성의 역사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무기한’ 보상 및 ‘단편적’ 발굴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 12월 문화재청과 함께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해 보상범위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기존의 ‘신청순’ 보상과 ‘단편적’ 발굴에서 왕궁터 추정지 등 핵심지역 중심의 ‘기획’ 보상과 ‘권역별’ 발굴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보상규모를 2조 원에서 5,137억 원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5년 내로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문화재청 및 국회와 협력하여 보상재원(국·시비)을 2015년 500억 원에서 2016년 571억 원으

로 증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보상재원만으로는 보상금 5,137억 원을 5년 안에 마련할 수 없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먼저 보상하고, 국가가 ‘계속사업’ 방식으로 국가 부담분(원리금의 70%)을 추후 지급하기로 문화재청과 합의하였다. 또한, 발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 과학적 분석기법인 ‘고지형 분석’² 결과를 바탕으로 왕궁터 추정지 등 핵심유적을 발굴할 계획이다.

〈표 2〉 풍납토성 조기보상을 위한 재정 및 지방채 발행 추정액

(단위: 억 원)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5,137	1,250	1,157	1,010	910	810
재정	2,855	571	571	571	571	571
지방채	2,282	679	586	439	339	239

2. 현장박물관 (on-site museum) 설치 및 문화예술촌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풍납토성 안에는 ‘경당역사공원(경당지구)’과 ‘풍납백제문화공원(미래마을)’이 있다. 그러나 문화재를 중심으로 정비·복원된 곳이 아니기에 풍납동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은 이곳이 함축하는 백제왕성으로서의 역사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풍납토성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역사문화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곳을 제대로 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획발굴지역인 경당지구에 보호각(shelter)을 설치하여 현장박물관(on-site museum)을 조성하고, 백제시대의 유구·유물 등 발굴 결과뿐만 아니라 발굴과정 자체도 전시하여 백제왕성의 역사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² 지형도, 항공사진 등을 판독하여 옛 유적의 위치, 분포, 잔존 가능성을 예측하고, 발굴조사에 유용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는 최신 과학적 분석기법



아제르바이잔 가발라시 살비르성

경주 쪽섬 유적발굴전시관

경주 골굴암

〈그림 1〉 문화재 보호각 설치사례

또한, 보상이 완료된 풍납토성 안의 빈집은 풍납토성 주민과 다양한 문화예술가가 백제왕궁 유적 복원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예술창작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풍납토성 한성백제유적지를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촌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다.



〈그림 2〉 빈집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사례

Ⅲ. 한성백제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및 지역협력을 통한 백제역사관광벨트 조성

1. 충남, 전북 등과 연계한 한성백제 유적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 추진

지난 2015년 7월 충남(공주·부여)과 전북(익산)의 백제역사유적이 우리나라의 12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전(前)기 백제의 수도인 한성이 후(後)기 백제의 수도인 웅진(공주)과 사비(부여)보다 오랫동안 백제의 수도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서울에 있는 풍납·몽촌토성, 석촌동·방이동 고분군 등 한성백제유적을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유적과 연계하여 세계유산으로 확장 등재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는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등 한성백제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과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는 용역을 올해부터 시작하였다.



〈그림 3〉 세계유산 등재 예정 주요 한성백제유적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석촌동 고분군에 있는 ‘제3호분’의 역사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다. 이 고분은 '동방의 피라미드'로 불리는 중국 지안(集安)의 고구려 장군총보다 규모가 크고, 한국형 피라미드로 볼 수 있는 백제의 중요한 유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고분이 백제의 최전성기를 구가한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민과 국내·외 관광객은 아직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이 고분이 백제 근초고왕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후에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호수, 롯데월드 등과 연계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2. 충남, 전북과 연계한 백제역사 관광벨트 조성

서울시는 2015년 하반기부터 풍납토성, 석촌동 고분군 등 한성백제유적을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보전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한성백제유적은 충남(공주·부여)과 전북(익산)의 백제역사유적과 함께 백제의 역사유적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러한 공통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충남·전북과 함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5년 10월에는 한성백제유적을 한 자리에서 보는 '백제왕도-서울·공주·부여·익산' 사진전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2015년 4분기와 2016년 1분기에 상호 방문하여 공동 관광사업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백제권역 지자체
간담회

서울시 백제왕도
사진전 관람

한성백제박물관
전시 관람

〈그림 4〉 백제역사유적 지자체 간담회

한편, 서울시는 한성백제유적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와 서울·충남·전북의 백제역사유적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서울(송파), 충남(공주·부여), 전북(익산) 간 '678년 백제유산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와 통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가칭)을 올해 안에 체결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에는 (1)한성백제유적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위한 정보공유와 협력, (2)백제유적의 광역 관광자원화 추진을 위한 정책협력, (3)현지유적 공동답사 등 인적 교류, (4)학술대회, 통합축제, 전시, 교육 등 공동행사 개최, (5)지역주민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6)중국,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및 관광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IV. 민관거버넌스 구축·활용을 통한 최고의 역사관광특구 조성

서울시는 앞서 살펴본 한성백제유적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남, 전북 등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역사·고고학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5년 10월 백제 관련 7개 학회, 문화재청, 송파구청과 협력하여 ‘고대 동아시아의 왕성과 풍납토성’이라는 주제로 풍납토성이 백제의 왕성이라는 사실을 규명·선포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성백제왕도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와 풍납동 주민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한성백제시민위원회’를 민관거버넌스의 양대 축으로 두고 있다.

‘한성백제왕도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서울시(역사문화재과, 한성백제박물관 등), 송파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재, 시민소통, 도시계획, 세계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한성백제 관련 정책과 지자체 간 교류협력을 자문·지원하고 있다. 다른 축인 ‘한성백제시민위원회’는 풍납토성에 거주하며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풍납동 주민과 송파주민, 일반 서울시민, 풍납동 주민단체, 송파지역 비정부기구(NGO), 역사관련 NGO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4월부터 자율적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역사탐방 지원 등 한성백제유적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한성백제유적을 세계유산으로 확장 등재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관광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민관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성백제왕도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그림 5) 한성백제왕도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및 한성백제시민위원회 구성

V. 세계 최고의 역사관광도시, 서울을 꿈꾸며!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유적은 우리 서울시와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첫째, 역사적 측면에서 서울의 역사가 '조선의 수도 한양' 600년을 넘어 '백제의 수도 한성'을 포함한 2,000년 역사도시로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③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백제가 해상활동을 통해 중국, 일본 등과 문화교류가 활발했던 과거의 역사는 한성백제유적이 중국, 일본의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특징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충남(공주, 부여) 및 전북(익산) 백제역사유적을 연계하여 관광벨트로 구축함으로써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관광자원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한성백제유적지가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 송파구 등 자치구, 충남·전북 등 다른 지자체, 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의 협력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관광특구로 복원이 이루어지면 이 일대가 백제역사유적 관광명소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관광자원인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유적의 발굴, 복원·정비, 활용 및 세계유산 등재와 민관협력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통해 우리 서울특별시를 '세계 최고의 관광특별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관광국가'로 만들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고대해 본다.

^③ 서울은 아시아에서 중국 진나라, 당나라 수도였던 시안(西安) 다음으로 오래된 수도 역사를 지닌 역사도시이다.